
정책참고자료

2018-1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행정혁신 성과창출 가속화** ————— 4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 추진단」 출범 -

2 국민권익위원회

-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 7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감면' 제도개선 권고 -

3 중소벤처기업부

-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정책 시동** ————— 11
- 중기부-지자체 협의채널 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개최 -

4 교육부

-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행간다** ————— 14
-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대국민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시상식 개최** ————— 19
- 디자인 부문 '자연환경 기후기술이 만드는 밝은 미래',
아이디어 부문 'Below2'대상 영예 -

6 문화체육관광부

- 비무장지대 정전 65돌, 평화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22
- 문체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대표 관광자원·음식·행사 통합홍보 -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심화과정 운영** ————— 26

8 환경부

국립생태원 '생태계와 기후변화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생태원, 7월 26일부터 에코리움 특별전시장에서 '생태계와 기후변화' 특별기획전 개최 -

9 고용노동부

컨설턴트 역량 높여 청년 일자리 문제 풀어가요

- 고용정보원, 전국 101개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대상 직무연수 실시 -

10 여성가족부

"맛벌이가정 자녀돌봄을 지원합니다!"

- 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

- 3년간 150개소, 올해 내 50개소 문 열어 -

11 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31일 출시

-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12 해양수산부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해결한다

- 7.26 업무협약 체결... 7.30부터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실시 -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행정혁신 성과창출 가속화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 추진단」 출범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의 성과 창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혁신 추진단」이 7월 24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지방행정정책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3월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지방행정혁신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지방행정혁신 추진단은, 현재 자치분권 확대가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혁신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분권형 지방행정혁신’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접점에서 주민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이 체감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사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방행정혁신 전반에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토론회 등 지방행정혁신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심보균 차관은 “17개 시·도의 혁신 슬로건에는 ‘행복’, ‘시민’, ‘도민’, ‘주인’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정부혁신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행정 혁신 추진단 출범을 통해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감면’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른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의 취지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1~3급 장애인에게는 50%, 4~6급에는 30%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자체 휴양림에 대해서도 국립에 준하는 요금감면이 필요함 (‘16.12월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 주말에 ○○휴양림에 다녀왔는데 산책로에 데크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매우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많았고, 장애인 객실이 아직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 ('17.9월 국민신문고)
- 휠체어를 타고 ○○휴양림에 갔는데 화장실 안전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화장실로 급히 이동했지만 다른 곳은 장애인 화장실의 안전손잡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음 ('16.5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일반 화장실



■ 안전손잡이가 거꾸로 높게 설치



■ 휠체어 사용자 이동이 어려운 숙박시설



■ 휠체어 사용자 이동이 어려운 산책길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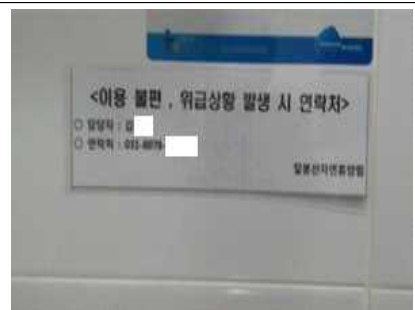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및 책임관리자 지정·관리[예시]



■ 숙박시설 휠체어 이동로



■ 야외화장실 휠체어 이동로



■ 책임관리자 및 연락처 명시

□ 장애인 시설요금 감면조항이 있는 휴양림 현황

광역시	기초	휴양림명(19)
대전	서구	장태산자연휴양림
경기	의왕시, 가평군	바라산자연휴양림, 칼봉산자연휴양림
강원	양양군, 평창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평창자연휴양림
충북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화자연휴양림, 백야자연휴양림·수레의산자연휴양림, 생거진천자연휴양림, 성불산자연휴양림, 좌구산자연휴양림
경북	김천시, 구미시, 경주시, 고령군	수도산자연휴양림, 옥성자연휴양림, 토함산자연휴양림, 미송산자연휴양림
전남	완도군	완도자연휴양림
경남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	거제자연휴양림, 대운산자연휴양림, 구재봉자연휴양림

□ 장애인 시설요금 감면조항이 없는 휴양림 현황

광역시	기초	휴양림명(84)
대구	달성군	비슬산자연휴양림·화원자연휴양림
인천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대전	동구	만인산자연휴양림
경기	용인시, 남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용인자연휴양림, 축령산자연휴양림, 고대산자연휴양림, 강씨봉자연휴양림, 용문산자연휴양림
강원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홍천군, 양구군, 정선군, 영월군, 인제군	안인진임해자연휴양림, 집다리골자연휴양림·춘천숲자연휴양림, 치악산자연휴양림, 태백고원자연휴양림, 가리산자연휴양림, 광치자연휴양림,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망경대산자연휴양림, 하추자연휴양림
충북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단양군, 옥천군, 괴산군, 보은군	계명산자연휴양림·문성자연휴양림·봉황자연휴양림, 박달재자연휴양림,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조선암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조령산자연휴양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보은자연휴양림
충남	보령시, 논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공주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양촌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태학산자연휴양림, 남이자연휴양림, 만수산자연휴양림, 봉수산자연휴양림, 안면도자연휴양림, 용봉산자연휴양림, 칠갑산자연휴양림, 주미산자연휴양림, 금강자연휴양림
전북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흥부골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데미샘자연휴양림, 무주자연휴양림·향로산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와룡자연휴양림, 세심자연휴양림·성수산자연휴양림
전남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해남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고흥군	백운산자연휴양림, 봉황산자연휴양림, 순천자연휴양림, 가학산자연휴양림, 구례산수유자연휴양림, 백야산자연휴양림·한천자연휴양림, 유치자연휴양림, 제암산자연휴양림, 주작산자연휴양림, 팔영산자연휴양림
경북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상주시, 영천시, 울진군,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칠곡군, 청송군, 영양군	계명산자연휴양림·안동호반자연휴양림, 불정자연휴양림, 비학산자연휴양림,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주승마자연휴양림, 구수곡자연휴양림, 군위장곡자연휴양림, 금봉자연휴양림, 독용산자연휴양림, 송정자연휴양림·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청송자연휴양림, 홍림산자연휴양림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창녕군	금원산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산삼자연휴양림·용추자연휴양림, 오도산자연휴양림, 한방자연휴양림, 화왕산자연휴양림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천보산자연휴양림(경기도 포천) 임시휴장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정책 시동

- 중기부·지자체 협의채널 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개최 -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기부가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정책 시동

- 중기부-지자체 협의채널 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개최 -

-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도형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기부가 선도한다.
- ☐ 이를 위해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신설·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가 소통을 강화한다.

☐ 민선 7기의 본격 출범에 발맞추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행시대가 본격 시작된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월 18일(수)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18년도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중기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형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과거 중기청은 지자체와의 정기적인 협의채널이 없었고, 중기부 출범에 따른 역할 강화에 맞춰서, 최초로 지자체와의 협의채널을 신설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협의회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간 소통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차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방안,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복잡·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맞춤형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홍종학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다른 어느 부처보다 중기부가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갖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서민지갑팽창론”이라고 강조하면서,
 - 지역차원에서도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로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서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스마트공장, 메이커스페이스, 전통시장 지원 등 주요 중기부 정책
에서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 향후 중기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8.7.18(수) 14:00~15:30, 대전정부청사 중기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중기부) 장관(주재), 중소기업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 안건
 -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분야 실적과 향후 방향
 - 중기부 정책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 지자체 제안과제 및 건의사항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붙임 1, 2] 참조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5.18)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붙임 2] 참조

○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하였으며,

○ 비닐밀폐* (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 (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하여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하였다.

* (비닐밀폐막)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한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시트로 덮음

** (경량철골) 천장텍스 고정(부착)을 위해 설치하는 홈이 있는 철재틀

□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 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 비닐 보양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를 음압으로 유지시켜, 비닐 밀폐된 작업장내 석면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에는 △ 학부모 2,143명, △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 101개 시민단체, △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

□ 금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1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6.1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 모니터단 교육(11개 권역, 6.20~7.6, 2,916명),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7.12~13, 275명)

□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금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기준을 미준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의무 명확화

※ (석면조사기관)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로 강화

□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가 현장지원단’은 대학교수 등 석면분야의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

□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여름방학 학교석면 특별관리 대책

I. 여름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황

□ 전국 641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 면적 규모별로는 2,000㎡초과 203개교, 800~2,000㎡ 226개교, 800㎡미만은 212개교

※ 소규모(2천㎡이하) 석면해체 예정 학교는 438개교로 68%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전북 135개교, 경남 82개교, 강원 68개교, 경북 61개교 등임

〈여름방학 석면공사 예정 학교 (단위: 개교)〉 (‘18.7.6현재)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41	41	62	41	2	31	16	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	19	19	135	34	61	82	24

* 대구 및 세종은 제거 학교 없음, 학교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II. 주요 추진현황

□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교육부·환경부)

- (구성)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641개교)별로 학교장(단장), 학부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 (모집: 4월~) 학부모 2,143명, 학교관계자 1,156명, 민간단체 101개, 외부전문가 210명 * 학계(17), 공공기관(84), 협회(36), 업체(68), 퇴직자(5)
- (역할) ① 사전 설명회 ② 사전청소 확인, ③ 비닐밀폐 검사, ④ 공사 중 모니터링, ⑤ 석면해체·제거 직후 잔재물 조사

여름방학 공사학교	모니터단 구성현황			
	외부전문가	학부모	학교장 등	민간단체
641개교	210명 (1인당 3~4개교 매칭)	2,143명 (평균 3.3명, 최대 46명)	1,156명	101개 단체 (519개교 매칭)

<모니터단 및 관계자 교육 현황 : 총 5,182명>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11개 권역, 6.20~7.6, 2,916명), △**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
(7.12~7.13, 275명)

□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 운영** (여름방학부터 적용)

- (적용) 모니터단이 잔재물 조사하여 불합격시 후속공정 진행 금지
- (시기) 석면해체·제거 직후 실시(종전에는 리모델링 등 전체공사 완료 이 후 실시하여 잔재물 발견시 정밀청소 등 곤란)
- (절차) 석면공사 완료시 조사 요청(해체업자) → 잔재물 조사(모니터단) → 합격시 후속공사 진행(인테리어·신규텍스 부착 공사 등)

□ **학교석면 해체·제거 기준 강화** (교육부·환경부·고용부)

- (사전청소) 이동 가능한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 및 사전청소 의무화
※ 사전청소 적정여부를 모니터단이 확인 예정
- (비닐밀폐) 벽과 바닥 모두를 2중 비닐밀폐(보양) 적용
- (고정틀제거) 석면텍스를 고정하는 경량철골(M-bar) 철거 의무화
※ 경량철골에서 석면 잔재물이 잔존 및 비산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8.5. 교육부→학교)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 마련·배포('18.6. 환경부→감리인)

「2018 대국민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디자인 부문 '자연환경 기후기술이 만드는 밝은 미래' , 아이디어 부문 'Below2' 대상 영예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곽병성), 녹색기술센터(소장 오인환)는 '2018 대국민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을 7월 19일(목) 오전, '2018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이 열리고 있는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

<2018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 (목적) 국내 기후기술의 성과 홍보·체험을 통해 기후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의 기반 마련
- (기간/장소) 2018.7.18.(수)~7.20.(금) / 양재 aT센터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디자인(포스터/인포그래픽)'과 '아이디어(스케치/제안서)' 두 분야로 나누어 5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71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편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디자인 부문 대상(과기정통부장관상, 이하 장관상)에는 포스터 작품 '자연환경 기후기술이 만드는 밝은 미래(성시우)'가,
- 아이디어 부문 대상(장관상)에는 보드게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안서 작품 'Below2'(김성준)가 선정

되었다.

- 이외에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에는 포스터 작품 ‘초록색 미소가 넘치는 함께하는 우리나라(박연수)’, 인포그래픽 작품 ‘우리 삶에 숨어 있는 기후기술(조정민)’이,
 -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에는 제안서 작품 ‘단열재 주입 및 추출 시스템을 갖춘 유리온실(신재승)’이 선정되었으며,
 - 제안서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2018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개최기간 동안 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 김정원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후기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 대국민 기후변화대응 작품 공모전 개요

□ 공모전 개요

-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 공모주제 :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디자인

* [참고] 기후기술

: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과 관련된 기술로, 탄소저감(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CCS), 탄소자원화(부생가스 전환, CO₂ 전환, CO₂ 광물화), 기후변화 적응(공통 플랫폼) 등이 대표적

-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개인 또는 팀)

※ 초중고: 초중고 재학생 및 해당 연령인 자, 대학일반: 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일반인

□ 공모전 추진경과

- 응모기간 : 2018. 5. 9.(수) ~ 2018. 6. 19(화)
- 심사일정 : 2018. 6. 21(목) ~ 2018. 7. 6(금)
- 결과발표 : 2018. 7. 12.(목) 11:00-12:00
- 심사결과 : 대상 포함 총 17팀, 시상금 1,010만원

<시상 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100만원(2명)	70만원(3명)	50만원(12명)

※ 대상(2명)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여, 최우수상(3명) 및 우수상(12명)은 주관기관장 수여

- 시상식 및 발표회 : 2018. 7. 19.(목), 2018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 수상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8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에서 전시(디자인/아이디어 스케치 부문, 7.18~7.20) 및 발표(아이디어 제안서 부문, 7.19 당일) 예정

비무장지대 정전 65돌, 평화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문체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대표 관광자원 · 음식 · 행사 통합홍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25전쟁 정전협정(1953. 7. 27.) 65돌을 맞이해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이하 비무장지대 평화관광)를 위한 통합홍보를 지원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본연의 평화적 기능을 복원하고 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세계 유일의 평화관광지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해 접경지역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콘텐츠다. 그동안 안보견학 위주의 지역 개별 행사와 홍보는 있었으나, 이를 최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연계관광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유관 지자체*, 관광공사 등과의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준비모임’(5~7월)을 통해 유관 지자체가 추천한 대표 관광자원과 음식, 주요 행사(이벤트) 등을 선정해 통합홍보 지원 사업을 먼저 추진한다. 준비모임 참석자들은 이번 방안을 통해 기존 접경지역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개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인천(옹진, 강화), 경기(김포,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번에 통합홍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추천 대표 관광자원(景)과 지역의 대표음식(味)은 ▲ 인천 옹진의 ‘두무진, 꽃게’, ▲ 강화의 ‘평화전망대, 젓국갈비’, ▲ 경기 김포의 ‘아트빌리지, 장어구이’, ▲ 파주의

‘임진각, 장단콩’, ▲ 연천의 ‘한탄강 관광지, 한탄강 매운탕’, ▲ 강원 철원의 ‘고석정, 오대쌀밥’, ▲ 화천의 ‘평화의 댐, 어죽·매운탕’, ▲ 양구의 ‘두타연, 시래기’, ▲ 인제의 ‘자작나무숲, 황태구이’, ▲ 고성의 ‘통일전망대, 활어회(물회)’ 등 10건이다. 이 홍보 대상 사업들은 2012년에 시범 운영된 바 있는 ‘10경 10미’ 사업을 재발견하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화하며 여행자들이 연계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지자체 추천(홍보 요청) 비무장지대 대표 관광자원 및 음식(10경 10미)>

지역		관광자원	음식	비고
인천	옹진군	두무진	꽃게	백령도
	강화군	평화전망대	젓국갈비	
경기	김포시	아트빌리지	장어구이	
	파주시	임진각	장단콩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한탄강 매운탕	
강원	철원군	고석정	오대쌀밥	
	화천군	평화의 댐	어죽·매운탕	
	양구군	두타연	시래기	
	인제군	자작나무숲	황태구이	
	고성군	통일전망대(해돋이타워)	활어회(고성물회)	

* 일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올해 하반기 지역 주요 행사로는 ▲ 인천 옹진의 ‘타 시도민 관광객 섬나들이 지원’, ▲ 강화의 ‘고려문화축전’, ‘2.6 영화제’, ▲ 경기 김포의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 파주의 ‘시티투어 휴(休)’, ‘캠프그리브스 문화전시·공연’, ▲ 연천의 ‘디엠지(DMZ) 생태체험프로그램’, ▲ 강원 철원의 ‘다슬기 축제’, ‘태봉제’, ▲ 화천의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 양구의 ‘배꼽축제’, ‘디엠지(DMZ) 마라톤’, ▲ 인제의 ‘빙어축제’, ▲ 고성의 ‘통일명태축제’ 등 20여 건이다.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의 ‘고려문화축전’(7. 28.~29.)은 고려 개국(918년) 1,100돌을 기념하고, ‘2.6 영화제(8. 25.)’는 출품작 상영시간 요건인 2분 6초를 뜻하지만 교동도와 북한 황해도 연백 간 최단 거리인 2.6km를 상징하기도 해 ‘평화, 통일, 그리고 섬’이라는 주제와도 결부된다.

경기 파주의 임진각관광지와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옛 미군기지)

전시·공연(6~10월), 김포의 평화누리길 걷기(10. 20.)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도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열릴 계획이다. 강원 철원의 ‘다슬기 축제(8. 2.~5.)’, 양구의 ‘배꼽축제(7. 27.~29.)’, 화천의 ‘쪽배축제(7. 28.~8.5.)’, ‘토마토축제(8. 2.~5.)’ 등 시원하고 재미있는 여름축제도 관광객을 기다린다. 특히 ‘디엠지(DMZ) 청소년 탐험대(7~10월, 경기도)’ 활동은 미래세대 평화·통일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체험자 소감>

- #1 외국인 ㄱ: “사실 작년까지는 한국 방문이 겁도 났어요. 살아가면서 분단국가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왔는데, 이런 풍광을 본다니 환상적입니다.”
- #2 지역상인 ㄴ: 남북정상회담 뒤에 관광객이 예전보다 늘다 보니 매출도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1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관광수용 여건도 더 개선되길 바랍니다.”
- #3 회사원 ㄷ: 10여 년 전 금강산 가족여행을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우리 아들, 딸 세대들은 화해와 평화의 통일시대에서 살면 정말 좋겠어요.”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공사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경 10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작가·여행가 등) 컨설팅, 여행주간 및 국내외 박람회 연계 홍보, 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여행 활용, 관광수용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관 부처와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육성되어, 내수 진작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관련 사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 운영

《 주 요 내 용 》

◆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생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심화과정 운영

○ 교육일자 : '18. 7. 23. ~ 7. 25.(3일간)

○ 교육인원 : '16·'17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자 39명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서해동, 이하 '교육원')은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생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리더십 역량 강화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지역 리더육성을 목표로 매년 운영하는 교육원의 대표 교육과정이다.

- 본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농업관련 단체 간부 활동을 비롯해 각종 대회 수상으로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등 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총 수료인원('02 ~ '17년) : 369명

○ 이번 심화 과정은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 수료자 39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 수료인원 : 135명('07년 32, '08년 20, '10년 19, '12년 24, '14년 23, '16년 17)

□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 사회적 마을기업 만들기, 지역민과의 갈등관리 등 현장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 전자상거래 관련법규의 이해, 농업회사법인 기초이해, 농업경영인 회계 실무 등 현장실무 능력 제고를 목표로 설계했다.

□ 서해동 교육원 원장은 “농촌 마을의 활력 제고와 농촌 융복합 산업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여성농업인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현장실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리더십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 “본 과정처럼 농촌현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현장리더십 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주요 활동 현황

□ 단체 간부 활동

- ① (전)한여농 중앙연합회 회장(1기 허기○)
- ② (전)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회장(1기 최애○)
- ③ (전)전통우리음식진흥회 회장(2기 김영○)
- ④ (현)청년여성농업인 CEO 연합회 회장(11기 유지○)

□ 수상실적

- ① 2018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 '12년 교육생 성의○, 장려상 : '18년 교육생 함은○)
- ② 2017 자랑스러운 새농민상('15년 교육생 강미○)
- ③ 2017 전국발효식초 전국 품평회 금상('15년 교육생 김성○)

□ 공공기관 간행물 및 언론매체 소개

- ① 공공기관 간행물 : 농촌진흥청('18년 교육생 고비○) aT('17년 교육생 간미○)
- ② 언론매체 : KBS('15년 교육생 신재○), 한국농어민신문('17년 수료생 표성○)

참고 1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 개요

□ 개설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전문농업 경영 역량 강화 계획 지원을 위해 '02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개설
- * 운영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4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01~'20년)

□ 교육 목적

- 여성농업인리더의 교수기법 습득, 기획력 및 리더십 개발 등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 추진 성과

- '02년~'17년까지 총 369명 교육 수료 후 지역 리더 및 강사로 활동
- * 수료생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강사요원으로 활동
- 수료생을 대상으로 격년제(짝수연도)로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현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진

□ 교육 대상 및 운영 방법

- 대상: 여성농업인을 지자체에서 교육 적격 여부를 검증 후 교육원에 추천
- 기준: 지역별 안배, 영농경력, 지원동기 등을 감안하여 교육원 자체 선발 위원회를 거쳐 교육생 최종 확정
- 인원: 30명(누계 120명, 30명×4회) / 동일교육생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
- 교육기간: 연 12일(회당 3일×4회, 76시간 내외)
- 교육내용
 - (리더역량 개발) 리더십 개발, 기획력 개발, 실무능력 배양, 정책방향 등
 - (강의역량 개발) 교수법 개발, 강의력 증진, 정보화 능력 등
- 환류
 - 매회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과목 및 교재 내용, 강사, 현장학습 등에 대한 피드백을 도출하여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참고 2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 현장 사진



국립생태원 ‘생태계와 기후변화 특별기획전’ 개최

- 국립생태원, 7월 26일부터 에코리움 특별전시장에서 ‘생태계와 기후변화’ 특별기획전 개최 -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개원 5주년 기념으로 ‘생태계와 기후변화 특별기획전-기후변화 탐사선 ER9715’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특별전시장에서 7월 26일부터 1년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기획전은 기후변화를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와 위험에 관한 각종 정보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 관람객은 가상의 기후변화 탐사선 ‘ER9715호’를 타고 떠나는 탐사여행이라는 주제로 전시물을 둘러본다.
- ‘ER9715호’는 생태연구의 영어(Ecological Research) 앞글자를 따왔다. 뒤의 숫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인 ‘교토의정서(1997)’와 ‘파리기후변화 협정(2015)’이 체결된 연도를 의미한다.
- 전시공간은 ▲ 전 세계 기후변화 위기상황, ▲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 대응 노력(연구 소개), ▲ 함께 만드는 생태지구-실천 코너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 관람객이 탐사선을 타고 각 전시물의 관람 인증을 받도록 구성하여 보는 재미를 더했다.
- 첫 번째 전시공간인 ‘전 세계 기후변화 위기상황’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생성 원인을 직접 알아보는 곳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피해 상황을 최신 뉴스를 통해 확인하며 기후변화의 개념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두 번째 전시공간인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동식물에 대해 소개하고 그 중 금강모치, 굴거리나무 등 실제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선정된 동식물을 전시했다. 또한 기온상승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를 터치 스크린으로 살펴 보도록 했다.
- 세 번째 전시공간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국립생태원의 기후변화 기반연구, 기후변화 위험요인 및 보존대책 연구, 구상나무 연구 등을 소개한다.
- 네 번째 전시공간인 '함께 만드는 생태지구-실천 코너'는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을 체험과 참여를 통해 직접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서대수 국립생태원 전시교육실장은 “이번 특별기획전은 국립생태원 개원 5주년을 맞아 생태원의 주요 연구 주제의 하나인 ‘기후변화’를 전시와 교육을 융합하여 기획했다”라며, “여름방학을 맞는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1. 생태계와 기후변화 특별기획전은 무엇인가요?

- <생태계와 기후변화>는 국립생태원 개원 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입니다. 기후변화 현상으로 찾아지는 홍수와 가뭄, 폭서와 폭한, 미세먼지 등은 인간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후변화를 ‘생태’ 관점에서 접근하여 동식물들에게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과 위협, 대응방안을 알아봅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의 생각 변화와 실천이 모이면 미래세대에게 푸른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 관람 포인트

전세계 기후변화 현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탐사선!
입구에서 탐승권을 받고 탐승확인을 합니다.
탐승권에 각 존별 관람확인 인증을 받습니다.
탐승권으로 4존 북극곰 마을 체험에 참여합니다.

○ 전시동선



2. 국립생태원의 생태관련 기후변화 연구는 무엇인가요?

- 국립생태원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생태전문국립기관으로 생태관련 연구·전시·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부문 중 생태관련 기후변화 연구는 생태계가 기후변화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는 ‘생태계 기후변화 기반 연구’, 우리나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하게 될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어떻게 보존대책 수립에 접근할 것인지 연구하는 ‘생태계 기후변화 위험요인 및 보존대책 연구’, 우리나라 고유종이면서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연구’를 비롯하여 환경부의 ‘2014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인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요소 기술 개발’의 생태부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기후변화 탐사선-ER9715는 무슨 의미인가요?

- ER은 Ecological Research(생태연구)의 앞글자를, 숫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가운데 중요한 ‘교토의정서(1997)’, ‘파리기후변화협정(2015)’이 체결된 연도를 의미합니다.
- ‘기후변화 탐사선’은 이번 특별기획전의 관람 콘셉트로, 1831년 찰스 다윈이 참여했던 비글호 탐사와 같이 관람객이 탐사선을 타고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를 관람하는 형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 각 존마다 관람 인증을 한 후 마지막 체험존에서 탑승권 뒤에 북극곰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얼음을 배달하는 스토리텔링을 담았습니다.

컨설턴트 역량 높여 청년 일자리 문제 풀어가요

- 고용정보원, 전국 101개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대상 직무연수 실시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홍)은 7월 24일부터 총 3회에 걸쳐 부산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01개 대학의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22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계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진로지도과정」을 운영한다.

* (1차) 7.24(화)~27, (2차) 8.7~10, (3차) 8.21~24

- 진로지도과정은 각 대학 컨설턴트의 업무역량을 높여 학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진로지도·취업·창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고 : 대학일자리센터 개요>

설 명	고용부·대학지자체가 협력해 대학 안에 설치한 진로 및 취·창업 통합 지원기관
지원대상	해당 대학 재학생 및 인근 지역 청년
지원내용	진로·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정부 청년고용지원 서비스 상담 등
현 황	전국 101개 대학 설치 운영 중(4년제 78개교, 전문대 23개교) * 전국 101개 대학일자리센터 현황은 [붙임1]참조

- 이번 연수에서는 각 대학 컨설턴트가 진로 및 취업지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강의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진로지도 자료 활용법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대학생 진로 지도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의 진로취업지원 요구와 전공연계 지원전략, 업종별 직무특성 이해 및 기업 지원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 아울러 △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고용노동부) △기업·직무분석을 통한 취업목표 설정 및 지원방안(양명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량기반 취업트렌드에 따른 입사서류 지도 방안(연정흠 (주)이츠에듀 대표)등에 대해 강의도 제공된다.

□ 상담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현장의 생생한 사례도 다수 소개돼 컨설턴트의 현장 직무능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연준 인하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취업스터디 및 동아리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전공·직무·희망기업별 학생들의 단계적 취업준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 김 컨설턴트는 인하대의 기업·전공·수준별 취업스터디 및 동아리 운영 지원 현황과 인문사회대 학생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김수진 호남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학생들의 희망 직무 및 핵심역량 수준에 따른 「자기소개서 단계별 컨설팅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 그는 호남대에서 제공하는 ‘자기소개서 단계별 컨설팅’과 ‘취업 교과목 연계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취업지원서비스 수혜율 향상’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 이재홍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컨설턴트에게 꼭 필요한 상담 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현장 우수 운영사례도 소개돼 컨설턴트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참석자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현장에서 잘 활용한다면 청년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교육 세부일정

날짜	시간	교육 시간	프로그램 내용	강 사
1일차 (화)	12:00~13:00	1시간	등록/숙소배정/중식	진행자
	13:00~14:00	1시간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진행자
	14:00~15:00	1시간	2018년 청년고용정책 이해 및 활용	이동현 사무관(고용노동부) 고재성 단장(한국고용정보원)
	15:00~16:00	1시간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팅 및 평가 방향	고재성 단장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
	16:00~18:00	2시간	기업-직무분석을 통한 취업목표 설정 및 지원 방안	양명주 박사
	18:00~19:00	1시간	석식	
2일차 (수)	08:00~09:00	1시간	조식	
	09:00~12:00	3시간	역량기반 취업트렌드에 따른 입사서류 지도방안	연정흠 대표(잇츠에듀) 김재연 대표(해피파인더)
	12:00~13:00	1시간	중식	
	13:00~14:30	1.5시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사례발표 I - 취업스터디 및 동아리 운영 사례 -	김연준 컨설턴트 인하대학교
	14:30~16:00	1.5시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사례발표 II - 전문대 진로취업지원 교육과정 수립 및 산학연계 사례 -	권중선 팀장 부천대학교
	16:00~18:00	2시간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이동욱 차장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품질팀
	18:00~19:00	1시간	만찬	
3일차 (목)	08:00~09:00	1시간	조식	
	09:00~12:00	3시간	주요 업종별 채용 트렌드 변화와 대학생 취업지원	천영민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
	12:00~13:00	1시간	중식	
	13:00~16:00	3시간	청년의 대학일자리센터 진로취업지원 요구와 전공연계 지원 전략	변정현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
			업종별 직무특성 이해 기반 청년 및 기업 지원 전략	
	16:00~18:00	2시간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및 취업 지원 사례 공유 (분임 토의)	천영민 박사, 변정현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
	18:00~19:00	1시간	석식	
4일차 (금)	08:00~09:00	1시간	조식	
	09:00~10:30	1.5시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사례발표Ⅲ - 학생진로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자기소개서 단계별 컨설팅 운영 사례 -	김수진 컨설턴트 호남대학교
	10:30~12:00	1.5시간	청년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와 활용 팁	김영은, 이혜나 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지원단
	12:00~13:00	1시간	종합정리 및 설문/중식/퇴소	진행자

※ 세부 일정은 참석자 및 강사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

“맞벌이가정 자녀돌봄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개소
 - 3년간 150개소, 올해 내 50개소 문 열어 -

-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신한 꿈도담터) 1호점이 7월 24일(화) 서울 서대문구 성원아파트(서대문구 연희로 소재)에서 개소한다.
- 이날 개소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1호점은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방학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맞벌이가정의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교 이후 숙제 및 생활지도, 미술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간식 등이 제공된다.

【신한 꿈도담터 1호점 운영계획】

- 운영 시간 : 월~금 14시~18시, 방학중 9시~13시
- 대상 및 인원 : 맞벌이가정의 초등 1~4학년 자녀 15명 내외(방학중 30명)
- 서비스 내용: 방과후 안전한 돌봄, 숙제 및 생활지도, 상시 프로그램(미술, 종이접기 등 문화 활동) 운영, 간식 제공 등

- 공동육아나눔터 내부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공간 설계부터 교구·장난감 등 배치까지 초등학생에게 적합하게 설비됐다.

-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1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맞벌이가정

자녀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3년 간 총 95억 원을 들여 총 150개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 단장 및 기자재를 지원키로 했다.

- 올해 상반기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한 가운데, 아동 안전 적합성, 이동 접근성 등을 고려해 20개 시군구의 23개 공간이 선정됐으며 오는 10월까지 모두 완공한다는 목표다.
- 또한, 연내 50개소 지원을 목표로 오는 8월 하반기 추가 공모한다.
-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관리, 사업 홍보, 지역 선정, 자문(컨설팅) 지원 등 중앙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독박육아' 등 가정 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역사회 육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있다.

- 연내 20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 중이다.('17년말 기준 160개소)

* '17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연인원 65만여 명, 품앗이 활동 참여 7만8천여 명

- 그간 삼성생명, 롯데, 신세계, 대우건설 등 많은 기업이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에 함께 해 왔다.

【 민간기업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현황】

- ▶삼성생명 MOU('12년) : '13~'18년 현재까지 총 43개소 리모델링 및 장난감·도서 지원(50개소까지 지원 예정)
- ▶롯데그룹 MOU('13년) : '13~'18년 총 16개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등 지원
- ▶대우건설 MOU('17.3) : '17~'19년 3년간 15개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리모델링 지원 예정('17년 1개 개소)
- ▶신세계그룹 MOU('14년) : '14~'16년 총 5개소 공간 리모델링 및 초기 운영비 지원

□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리는 개소식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문석진 서대문구구청장 및 관계자와 지역 초등학생,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출산을 제고가 아니라 ‘자녀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 “자녀 돌봄은 이제 가정 내 부모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통해 내 아이 돌봄에 온 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질 때 현 2040세대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 사업 개요

- 협 약: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간 업무협약 체결('18.1.26.)
- 내 용: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틈새돌봄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신규 개소(공간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
- 규 모: 연 50개씩 3년간('18~'21년) 총 150개소 지원(총 95억원 규모)

□ 2018년 추진 현황

- 지자체 대상 공모 추진('18.3~4월)
 - 기 간: (1차) '18.3.15.~3.30/ (2차) '18.4.1.~4.13.
 - 신 청: 총 46개 시군구, 55개소 신청
 - 선정 요건: 맞벌이가정 자녀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 활동 안전성 확보, 이동 접근성 고려, 지자체 추진 의지 등 고려
- 신청서 서면 검토 및 현장 실사('18.5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18.5.28): 총 20개 시군구, 23개소 선정
 - ※ 심사단: 여성가족부, 신한금융그룹, 아이들과미래재단(수탁 기관)
- 선정 지역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송부('18.6월)
-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컨셉(적용 디자인) 마련

□ 향후 계획

- 선정지역 공사 추진: 10월내 전 지역 완공 및 개소 예정
- '18년도 2차 공모 추진 : '18.8월초 예정
 - 연내 최소 50개소 지원 목표이므로,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실시
- 선정 지역 대상 전문가 현장 컨설팅 실시('18년 하반기)
 - ※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컨설팅단 구성·운영」 사업 필수 참여 대상

<선정 지역 현황(2018년 상반기)_총 23개소 확정>

연번	시도	시군구	운영기관명	신청타입*	층수
1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2층
2	서울	성북구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2층
3	대구	수성구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1층
4	대구	달서구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	2층
	대구	달서구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	3층
5	인천	서구	인천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	1층
6	광주	서구	광주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	1층
7	경기	김포시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A	2층
8	경기	파주시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A	2층
9	경기	구리시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5층
10	강원	강릉시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3층
11	강원	횡성군	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1층
12	강원	영월군	영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	1층
13	강원	춘천시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A	1층
14	충북	충주시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A	1층
15	충남	서산시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	1층
16	충남	부여군	부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1층
17	전남	광양시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
18	전남	광양시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1층
19	경북	청도군	청도군	A	4층
20	경북	예천군	경북 예천군	A	1층
21	경북	울진군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B	1층
22	세종	-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	3층
23	세종	-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C	1층

* A타입 15~20평형, B타입 25~35평형, C타입 35평 이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31일 출시

-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구 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가능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 충족 시 가입가능
혜 택	금리	연 최대 1.8%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좌동

-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

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

-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

구분		가입조건
가입 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 (납입방식)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

구분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1.0%	1.5%	1.8%	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u>2.5%</u>	<u>3.0%</u>	<u>3.3%</u>	<u>1.8%</u>

- ②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

- ③ (기타혜택)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참고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자	▶ 만 19~29세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우대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18.7.기준)				
	구분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일반이율	1.0%	1.5%	1.8%	1.8%
	청년우대형 이율*	2.5%	3.0%	3.3%	1.8%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과 동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과 동일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가입기간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해결한다

- 7.26 업무협약 체결... 7.30부터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7월 30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적쓰레기 수거는 항만구역 등 연안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 연안지역은 약 160만 원/톤, 먼 바다의 경우 200만 원/톤 이상 소요

이에 해양수산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거는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해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7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금)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양수산부 1억 3천 2백만 원, 수협 1억 6천만 원 등 총 2억 9천 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활동이 우수한 조합(조합원) 등에는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7월 26일(목) 오후 2시 해양환경공단에서 참여 수협과 해양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공단과 참여 수협은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을 포함하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깨끗한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향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먼 바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대부분이 폐어구로 추정되어, 무엇보다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어업인과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향후 다른 수협 등에도 확대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